



기상사랑

www.kma.go.kr Vol.367

2012. January **1**

풍경이 있는 날씨촌
“대계의 고장, 울진으로 놀러 오세요”

정책클로즈업
기상청, 국가 차원의 기상업무발전 기본계획 수립

신년호 기획기사
기상가족의 “희망리스트”
“용띠들의 새해출사표”



해

● 박두진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말갈게 씻은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산 너머 산 너머서 어둠을 살라 먹고,
산 너머서 밤새도록 어둠을 살라 먹고,
이글이글 애띤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달밤이 싫어, 달밤이 싫어, 눈물 같은 골짜기에 달밤이 싫어,
아무도 없든 뜰에 달밤이 나는 싫어……

해야, 고운 해야, 닉가 오면, 닉가사 오면, 나는 나는 청산이 좋아라,
활활활 깃을 치는 청산이 좋아라. 청산이 있으면 홀로라도 좋아라,
사슴을 따라 사슴을 따라, 양지로 양지로 사슴을 따라,
사슴을 만나면 사슴과 놀고,

침범을 따라 침범을 따라, 침범을 만나면 침범과 놀고……

해야, 고운 해야, 해야 솟아라. 꿈이 아니라도 너를 만나면, 꽃도 새도
짐승도 한자리에 앉아, 워어이 워어이 모두 불러 한자리 앉아,

애띠고 고운 날을 누려보리라.

January **1**



Contents

KMA Special Issue

- 나의 날씨이야기 날씨방송인의 날씨이야기 · 2
- 풍경이 있는 날씨촌 “대계의 고장, 울진으로 놀러 오세요” · 4
- 정책클로즈업 기상청, 국가 차원의 기상업무발전 기본계획 수립 · 6
- 송년호기획기사 그대는 무슨 꿈을 꾸는가 · 8
- “용띠들의 새해출사표” · 10

KMA About

- 열린마당 고래 잡은 날 · 12
- 울릉도 기상인의 겨울나기 · 14
- 흑산 홍어로 추운 겨울을 잠시 잊자!! · 16
- 대관령에서 스노우홀릭에 빠지다 · 18
- 세계 기상업무를 선도하는 그날을 위해 · 20
- 기상청, 대학생들을 만나다 · 22

KMA Hope

- 이달의 기상인 오늘은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위함입니다. · 24
- 날씨정보는 무한한 상상력으로 융합을 꿈꾼다.
- 날씨만화 해양기상 · 25
- 포커스 눈이 오면 선물이 쏟아집니다~ · 26
- 뒤돌아본 2011년 기상청 10대 뉴스 · 28
- 포토뉴스 · 30
- 퀴즈 · 32

날씨방송인의

날씨이야기



황수정 / TBN 기상캐스터



2011년 12월 24일 새벽, 이 글을 쓰는 지금 서울에는 2cm 가량의 흰 눈이 쌓여 있습니다. 잠시 후면 저는 화이트크리스마스를 기대하는 여러 청취자분들을 위해 활기차게 날씨 방송을 시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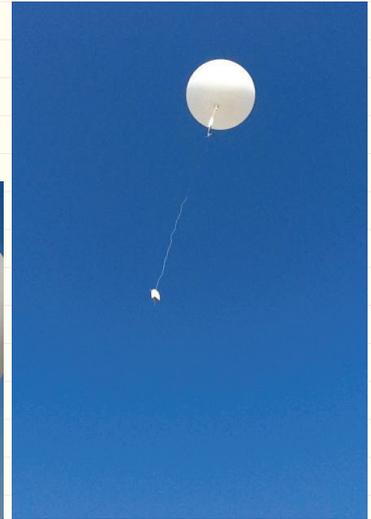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눈이 내리면 그저 '눈이 펩펩 온다', '눈이 소복이 쌓였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함박눈인지 싸락눈인지, 또 흩날리는 눈을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표현하면 좋을지와 적설량, 신적설량을 우선 살핍니다. 전에는 눈이 오면 강아지처럼 즐거워했는데, 날씨방송을 하면서부터는 걱정이 앞섭니다. 방심하기 쉬운 1cm 안팎의 적은 눈이 내리면 눈길 교통사고가 빈번해서 걱정이고, 폭설 피해지역 상황 걱정에도, 15분에 한번씩 재난특별방송을 해야 하는 제 사사로운 걱정까지. 이는 비단 겨울 만의 일이 아닙니다. 피약별이 내리쬐는 여름이면 불쾌지수와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를 먼저 생각하게 되고, 사람들은 더워서 땀이 많이 난다고 하는 것을 날씨방송을 하는 저희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온난습윤한 남서풍이 불면서 습도가 70% 이상 높아져서 후텁지근한...” 블라블라... 또, 같이 방송을 하는 선배들과 차라도 마시려고 보라매공원을 나서는 순간에는 날씨에 대한 브리핑을 직감적으로 시작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소개팅에서 어색한 순간을 탈피하기 위해 날씨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한다고 하는데, 저희 기상인은 날씨에 대한 한 마디 감상도 그저 흘려내는 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기상인의 숙명이고, 사명인가 봅니다.

감히 수십 년간 기상청에 몸담고 계신 기상인 앞에서 일개 날씨방송인이 허울 좀 늘여놓았습니다. 그래도 기특하고 재밌으시죠?

날씨를 방송한지는 4년 정도 되어 갑니다. DJ를 하고 싶었던 제가 이렇게 기상청 한편의 라디오방송실이라는 공간에서 청취자에게 ‘날씨’를 전하게 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하지만 기상캐스터로 선정되는 순간 상쾌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날씨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상쾌해야 합니다. 이미 전부터 방송에 입문해서 특유의 순발력과 성실함으로 입지를 굳혀가던 터라 날씨방송의 긴장감과 생동감은 적성에 잘 맞았는데요. 문제는 기

상캐스터를 대하는 외부인의 반응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듣던 질문은 “내일 날씨 어때요?”, “오늘 비 안 온다고 했는데 왜 비와요?” 등등, 지겹도록 듣던 질문을 다행히 요즘은 덜 듣습니다. 모두 예보관님들의 노고 덕분이겠지요. 누군가가 기상캐스터는 뉴스의 꽃이라고 하던가요? 저는 기상캐스터는 기상청의 최전방 특공부대라고 생각합니다.



12월 중순에는 난생처음 출장이라는 것을 갑니다. 기상청 정책현장탐방의 일환으로 제주 고산기상대와 국가태풍센터에 갔는데요. 해발 72m 수월봉, 우리나라 남서해안 최서단에서

국내에 발생하는 재해를 가장 먼저 관측하는 고산기상대는 기상청 본청의 기숙사 크기 만큼도 되지 않는 작은 곳입니다. 공익근무요원까지 포함해서 11명의 적은 인원이 일하고 있지만 누구보다 발 빠르게 기상 관측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고층기상관측 장비인 GPS 라디오존데를 직접 시행해 보면서 대기 기상관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태풍의 길목에 자리한 국가태풍센터에서는 피해만 주는 줄 알았던 태풍이 장점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로 인해 기상을 잘 이용하면 환경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 관심이 높아진 이상 기후현상. 날씨방송을 하는 저로서는 이상기후만큼 난제가 없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이기 때문인데요. 폭염 뿐 아니라 폭설과 한파도 지구온난화 때문이라니, 콜라의 톡 쏘는 맛을 즐길 때까지만 해도 이산화탄소가 그렇게 무서운 줄은 몰랐습니다. 천 년에 1도씩 상승하던 지구의 기온이 지금은 훨씬 더 빨리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온난화 속도는 세계평균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위험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미국과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도 탄소추적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기상에 있어서만큼은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는데요. 환경도 선진국 수준으로 만드는 것이 어떨까요?

이번 기상청 정책현장탐방에서 탄소추적시스템 도입과 관련해 지구온난화에 대한 세 미나를 들으면서 지금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이 미세한 변화가 훗날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날씨 방송을 하면서 저는 환경에 더욱 관심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마케팅도 ‘에코(eco)’를 내걸고 있습니다. 개발보다 보존을, 인공보다 자연을 소중히 하면서 이제는 속도를 늦추고 방향에 집중해야겠습니다. 기상이 원활한 기상으로 존재할 때 상큼하고 유능한 날씨방송도 계속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늘과 기상청과 날씨방송인과 청취자이자 국민인 우리 모두는 유기적인 관계니까요!

“대게의 고향, 울진으로 놀러 오세요”



울진기상대



후포항

울진은 경상북도 동북단에 위치하며 오염되지 않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곳이다. 특히 소나무와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솟아오르는 일출은 이미 널리 알려져서 관광객과 사진작가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하다. 최근 속초에서 울진을 관통하여 부산까지 이르는 7번국도 4차선 확장공사가 완료되어 울진으로의 여행이 더욱 가까워졌다. 동해 깊은 바다의 대게를 맛볼 수 있는 곳, 금강소나무의 푸른 정기가 있는 곳, 온천욕과 산림욕, 해수욕이 가능한 사계절 가족 휴양지인 울진으로 여행을 떠나보자.

7번 국도와 917번 지방도에서 즐기는 해안도로 드라이브는 울진 여행의 별미라고 할 수 있다. 해안선을 따라 놓인 도로의 중간 중간에는 바다 가까이 달릴 수 있는 드라이브코스가 이어져 있다. 특히 917번 지방도는 울진군 근남면 산포리에서 원남면 덕신리로 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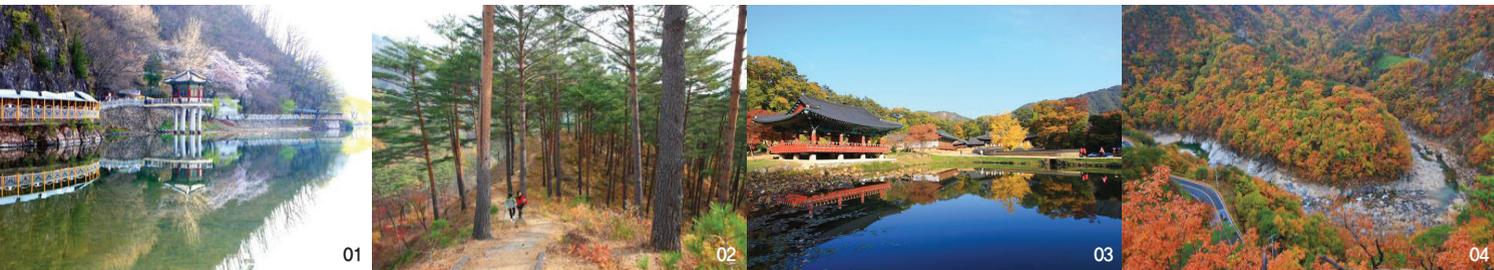
지는 망양정해안도로 구간이 멋지고, 7번 국도는 망양휴게소에서 대게동상이 유명한 울진 황금대게 싹터를 지나 기성항에 이르는 구간이, 다시 평해 직산리에서 갈라져 나와 후포항에 이르는 해안도로가 아름답다.

국도를 따라 달리다보면 울진군 근남면 산포리에 있는 망양해수욕장 근처 언덕에서 망양정을 찾을 수 있다. 신라의 화랑들이 선유했던 월송정과 함께 관동 팔경 중 하나로 꼽히는 망양정은 아름다운 풍광으로 유명한데, 해마다 정월이면 해돋이를 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 해발 45m 정상에 올라 바다를 바라보면 섬이나 다른 장애물이 없어 한눈에 일출을 감상할 수 있으며, 가족과 함께 해돋이 후 사진 촬영하기에 좋다.

특히 울진군에서는 경북북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망양정과 함께 아름다운 해안으로 알려져 있는 산포리 일대를 관광 상품화하기 위해 해안관광도로와 해맞이 공원을 조성하였으며, 해맞이 공원의 광장에서 소나무 사이로 보이는 바다와 떠오르는 해는 최고의 경관을 자랑한다. 이와 함께 담수욕과 해수욕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망양정해수욕장 일대를 둘러보는 것 또한 울진여행의 필수코스 중 하나이다.

동해안의 어로 기지이자 대게축제로 유명한 후포항

망양휴게소를 지나 7번 국도를 타고 남쪽으로 달리다보면, 동해안의 손꼽히는 어업 기지인 후포항이 나



01. 성류굴 전경 02. 소광리 금강소나무 군락지 03. 불영사 전경 04. 불영사 계곡

타난다. 후포항은 울진군 남쪽 끝에 있는 항구이며, 동해남부해역의 주요 어항으로서 콩치·오징어·대게 등 동해에서 나는 모든 어종의 집산지이다. 특히 대게는 주로 경북동해안에 서식하고 있으며, 울진에서 23km 떨어진 왕돌초에 서식하는 대게를 으뜸으로 친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제 45권 평해군 및 울진 현편의 기록에 보면 ‘대게’를 ‘자해’라는 이름의 특산물로 소개하고 있어 옛날부터 울진의 특산물로 ‘대게’가 유명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대게잡이는 주로 11~12월경에 시작하지만, 봄철에 살이 가장 많이 차오르므로 대게를 맛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계절로 손꼽힌다. 그래서 매년 봄마다 후포항에는 ‘울진대게국제축제’가 열리고 있으며, 울진대게를 맛보려는 많은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방문하고 있다. 축제에 오면 대게를 이용한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으며,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많아 가족단위로 나들이하기에 좋다.

천혜의 자연을 자랑하는 왕피천과 불영사 계곡

울진읍에서 조금만 서쪽으로 들어가면 동해안에 버금가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접할 수 있다. 먼저, 왕피천은 태백산 수비분지에서 발원하여 동해로 유입되는 길이 60.95km의 하천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다양한 동식물들이 서식하고 있어 남한의 마지막 남은 오지이자 자연유산으로 꼽힌다. 왕피천의 하류는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으로 연어와 은어가 집단으로 회귀하고, 동해 최대의 은어서식지로 꼽힌다. 왕피천 유역은 우수한 자연경관과 생태계의 효율적 보호를 위해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 및 관리되고 있다.

또한 왕피천을 굽이 돌아 선유산을 휘감고 돌아가는 곳에 신선이 노닐다 간 것 같은 아름다움을 지닌 성류굴(천연기념물 제155호)이 위치한다. 길이 472m

의 성류굴은 대표적인 천연 석회암 동굴로서, 종유석과 석순이 끝없이 펼쳐져 있어 장관을 이룬다. 왕피천을 따라 조금만 더 서쪽으로 들어가면, 천축산의 서쪽 기슭에 자리 잡은 신라의 옛 절인 불영사가 나온다. 불영사는 진덕여왕 5년(651)에 의상대사가 세웠는데, 연못에 부처님의 그림자가 비친다하여 불영사라 이름 지었다고 한다. 그림자의 실체는 불영사 뒤편 언덕 왼쪽에 있는 부처형상의 바위이다. 날씨가 맑은 날이면 이 바위가 연못에 비치는데 정말 부처의 형상인지 직접 가서 확인해 보는 것도 좋겠다.

불영사를 중심으로 하원리까지 15km에 걸쳐서 비경을 이루는 불영사계곡이 펼쳐진다. 불영사 계곡은 명승6호로 지정된 장엄한 계곡이며, 계곡을 끼고 달리는 36번 국도를 따라 여름철 피서지로 각광 받고 있다. 특히 불영사 계곡에는 한국토종 소나무 자생군락지로 수 백 년 고이 간직한 푸르름을 자랑하는 ‘소광리 금강소나무 군락지’가 위치하는데, “22세기를 위해 보존해야 할 아름다운 숲”으로 선정된 곳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 중이다. 금강소나무 숲의 원형이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으므로 생태탐방로 또는 최적의 삼림욕 코스로 손색이 없고, 소나무 숲에서 뿜어져 나오는 피톤치드는 그 풍광만큼이나 대단하다.

울진탐방의 마무리로 울진군 북면에 위치한 국내 유일의 자연용출온천인 덕구온천에서 여행의 피로를 푸는 것은 어떨까. 울 겨울, 청정 자연이 빚어낸 친환경의 메카이자 생태문화 관광을 자랑하는 울진으로 여행을 떠나보자. 가족, 연인, 그리고 친구와 함께 동해안의 절경을 따라 떠나는 오감만족 여행은 바로 울진이 안성맞춤이다.

기상청, 국가 차원의 기상업무발전 기본계획 수립

- 기상기후의 융합과 가치 확산으로 국민안전과 국가경제 선도

기획재정담당관

기상청은 1차 기상업무발전 기본계획('07~'11)에 이어, 증가하는 사회·경제적 기상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2차 기상업무발전 기본계획('12~'16)을 수립했다. 이 계획은 2011년 12월 22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본회의에서 심의·확정된 것으로, 기상청은 이번 중기대책을 통해 2016년에는 위험기상 사전대응시간을 30% 정도 추가 확보하고, 지진 정보를 50초 이내에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상청은 '기상기후의 융합과 가치 확산으로 국민안전과 국가경제 선도'를 새로운 비전으로 정하고, 국가적 아젠다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첨단 기상기술 확보와 기상인프라 강화, 글로벌 기상·기후 공동체 구축이라는 3대 목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5대 추진전략, 10개 중점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5대 추진전략은 첫째, 기상재해로부터 행복한 국민을 위하여, 위험기상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생활에 밀착한 기상서비스 제공을 중점 추진한다. 국가적 기상관측자료의 공동 활용 체계를 구축하여 위험기상 탐지능력을 강화하고, 수치예측모델의 해상도를 대폭 확대하여 수치예측 성능을 향상하는 한편, 선진예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위험기상 감시에서 통보까지 예보생산 전 과정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정보 활용 취약계층과 서민 중심으로 기상서비스가 확대되고, 지역별 맞춤형 정보로 재생산되어 모바일, 웨비게이션, 디지털 전문 기상방송 등 뉴 미디어를 통해 전달한다.

둘째, 풍요로운 사회를 위해 기상·기후정보를 자원화 한다.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사실과 예측정보를 제공하여 기후변화 적응 및 온실가스 저감정책을 지원하고자 울릉도독도 기후변화감시소가 운영되고, 고품질 국가표준 기후변화 시나리오와 탄소추적시스템이 개발 된다. 관측표준화법으로 수집된 막대한 양의 기후정보는 철저한 품질관리를 거쳐 신재생에너지, 산업관리 등에 필요한 다양한 응용정보로 제공되며, 기상서비스 전략상품과 첨단 국산 기상관측장비를 개발하여 민간에 이전하고 수출산업화를 지원하여 국내 기상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셋째, 튼튼한 국가를 위해 사회,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결정에 필요한 의사결정 기상서비스를 강화한다. 지진·지진해일 관측망을 고도화하고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재 300초 내외의 지진정보 전달시간을 50초 이내로 대폭 단축하고, 초단기 예보는 +6시간(현재 3시간), 동네예보는 +72시간(현재 +48시간), 주간예보는 +10일(현재 +7일)까지 예보기간이 확대되며, 장기에보는 정량화된 확률론적 예보개념* 이 도입된다. 또한, 기상인자와 비 기상인자를 결합하여 에너지 생산, 산사태, 농산물 관리 등에 필요한 융합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테러, 군 작전, 태양활동 극대기 등에 대비한 기상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 장기에보 중 많음, 적음, 비슷한 각 발생확률을 정량적 수치로 제공

넷째, 공존하는 세계를 위해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남북관계와 국제정세를 고려하여 전략적 남북기상협력을 추진하되, 평상 시 북한 지역의 기상기술력 축적에 매진하고, 국제기구를 통한 우회 협력을 추진하여 통일한국에 대비할 방침이다. 세계 7위의 기상기술력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상서비스와 기상기술을 공여하고 한중일 공동 기상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동북아 지역의 기상재해에 공동 대처한다.

다섯째, 미래사회에 대비한 기상업무 수행기반을 구축한다.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형 수치예보모델 개발을 본격 추진하고, 슈퍼컴퓨터 4호기와 다목적 항공기 도입, 천리안 후속 정지궤도 기상위성 개발을 역점적으로 추진한다. 국가정책 지원과 실용적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국립기상연구소를 확대 개편하고 전문 인력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생활 중심의 날씨를 즐기는 문화를 조성하고 국민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기상과학에 대한 이해를 확대한다.

지난 '06년 12월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된 1차 기상업무발전 기본계획('07~'11)을 이행한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 국민체감 예보만족도 향상 : 68점 → 81.9점
- 위험기상(호우)에 사전대응시간 확대 : 59분 → 97분
- 국내 기상사업자 매출액 증대 : 145억 → 644억
- 기상기술력(전지구 수치예보모델 오차) : 세계 10 → 7위

<주요성과 및 향후전망>

성과 지표	'05년	'10년	'16년(목표)
국민체감 예보만족도(점)	68.0	81.9	85.0
호우특보 선행시간(분)	59	97	125
기후변화 시나리오 해상도 (남한지역, km)	-	10	1
지진통보시간(분, 평균)	5.5	3.3	0.8
전지구 수치예측모델 오차 (m, +5일 예보)	70.0	53.8	43.1
기상사업자 매출액(억원)	145	644	3,000

그대는 무슨 꿈을 꾸는가

- 기상가족의 2012년 희망리스트



김연애 / 대변인실

해가 바뀌었다. 오늘 떠오른 해는 어제보다 떠올랐고, 내일도 분명 떠오를 것이다. 그러나 12월 31일과 1월 1일의 해가 달리 보이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이 오묘한 차이는 지구의 자전과 공전 등 천문학적인 이유와 달력이 통째로 바뀌는 물리적인 이유와는 다른 뭔가가 있는 것 같다. 새해가 되면 다양한 종류의 다이어리와 계획표가 선보이고, 작심삼일일지도 모를 야심찬 계획들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말은 씨가 되고, 글로 쓰면 이루어진다고 한다. 종이 위의 기적, 쓰면 이루어진다는 버킷리스트. 잠깐, 버킷 리스트(bucket list)라는 말이 생소한가. 버킷 리스트¹⁾는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을 적은 목록을 말한다. 새해 첫 달이니 만큼 버킷 리스트보다는 희망리스트로 표현하겠다. 그럼, 우리 기상가족들의 2012년 희망리스트는 무엇일까? 지난 2011년 12월, 새해를 앞두고 있는 전국 기상가족들의 마음 속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총 36개 부서(기상대 포함) 441명(여 195명, 남 246명)의 희망리스트를 받아보니 재미있는 사실이 나타났다. 응답 중 약 44%(194명)에 달하는 희망사항은 ‘건강’이었다. 초콜릿 복근 만

들기, S라인 만들기, 건강검진 재검 안하기 등 표현은 각각이었지만, 건강한 몸 만들기에 기상가족의 뜻이 모아졌다. 심지어 모 기상대에서는 3kg, 5kg, 10kg 등 다양한 체중감량의 의지가 나타나 몸짱 만들기의 뜨거운 열풍을 엿볼 수 있었다.

그다음으로 많은 희망사항은 자기계발. 26%(115명)의 응답자가 자격증 취득, 외국어 공부 등을 새해에 꼭 이루고 싶은 소망으로 제시했다. 자기계발 중에서는 외국어 능력 향상이 가장 많아 국제사회에서 일취월장의 행보를 걷고 있는 기상외교에 대한 기상가족들의 참여가 더욱 기대된다. 방송통신대학 졸업장, 박사학위 취득 등 학업에 대한 열정도 찾을 수 있었다. 어학, 자격증 등 외형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일주일에 책 한권 읽기, 인문교양 100선 읽기 등 순수하게 내실을 다지겠다는 소망도 있었다.

그럼 기상가족의 세 번째 지지를 받은 희망리스트는 무엇일까. 바로 솔로 탈출이었다. 여자친구 만들기라는 작은 소망부터 ‘올해는 시집가자’라는 굳은 의지가 돋보이는 소망까지, 심지어 여자친구와 영어회화 실력 쌓기의 1석 2조 효과를 노리는 ‘필리핀 아가씨 사귀기’도

1) 버킷 리스트(bucket list). ‘죽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속어 ‘킥 더 버킷(kick the bucket)’에서 만들어진 말로, 중세시대에는 교수형을 집행하거나 자살을 할 때 올라미를 목에 두른 뒤 양동이(bucket)에 올라간 다음, 그 양동이를 걷어차는데서 유래함.

있어 눈길을 끌었다. 건강한 몸을 만들고, 자기 계발로 내적 충실을 더한다면 멋진 짝을 찾기가 더욱 손쉬울 수 있지 않을까. 다만, 개개인의 눈높이 조율은 워낙 주관적인 사항이라 언급하지 않겠다.

대부분의 새해 소망 조사에서 건강과 상위 다툼을 벌이는 것이 바로 경제적인 부분인데, 기상가족의 소망에서는 4위를 차지했다. 내 집 마련부터 집 넓히기에 이어 아파트 두 채 만들기도 있었다. 재산 증식의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로또복권 당첨이 독보적이었다. 카드 사용을 줄이겠다, 월급으로만 한 달을 살겠다는 실천적인 의지도 제시되었지만, 로또 복권 1등에 중지가 모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솔직한 심정일 것이다.

이 밖에도 남북통일, 한반도의 평화, 안정적인 정권 교체 등 국가와 민족의 안위를 생각하는 기상가족들도 있어 잠깐이지만 숙연한 기분이 들기도 했다. 고향에서 근무하기를 원하는 기상가족도 몇몇 있었는데, 이를 기상청의 조직 구성에 반영해 '내 고향에 기상대 유치'라는 희망사항으로 승화한 이도 있었다. 새해마다 나오는 소망 중 하나인 금주, 금연은 올해도 단골 메뉴로 등장했다. 남편에게 친절하기, 성질 죽이기,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 갖기 등 긍정적인 생각 갖기도 있었지만, 나쁜 남자 되기라는

소망은 그 뒷얘기를 궁금하게 했다.

〈꿈을 현실로 만드는 미래 자서전 My Life〉(강현구 지음)에서는 자신의 비전을 글로 적은 뒤 소망을 이룬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대학의 풋볼팀 조교자리에서 해고된 루 홀츠는 밀저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107개의 목표를 적었다. 백악관에서 대통령과의 만찬, CBS 투나잇쇼 출연 등 28세의 무일푼 백수가 희망하기에는 터무니없는 목표들이었지만, 5년 후 25개, 43년이 지난 후 104개의 목표를 실현했다고 한다. 가슴 속의 꿈을 글로 옮기는 것은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관리한다는 의미다. 2012년 1월이 다가기 전에 나만의 희망리스트를 세워보자. 그대는 무슨 꿈을 꾸고 있는가. 나는 무슨 꿈을 꾸는가.



“ 용띠들의 새해출사표 ”



2012년은 임진년, 흑룡의 해.
승승장구, 승천하는 흑룡의 기운을 듬뿍 안은
용띠 기상가족의 힘찬 출사표를 들어본다.



● 전주기상대 김인태

영어 통달을 위해 2012년 1월 3일부터 삼육SDA학원 성인영어회화반에 등록했습니다. 3월 28일부터 5월 15일까지 아내와 함께 스페인 산티아고 800km 순례길을 걷기 위해 비행기표를 준비했습니다. 예전에 다녔던 수원 연무정에서 전국체전 경기도 대표선수가 되기 위해 국궁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4년차 승마인으로 주말마다 마상낙원(馬上樂園)을 즐기면서 내일을 알차게 맞이하겠습니다.



● 정읍기상대 박경열

기상인이 된 후 처음 맞이하는 용띠 해라 감회가 남다릅니다. 철없이 세상모르며 살다가 기상청 입사하고 인연을 만나 가정을 이루고 아버를 썩 빼닮은 백일 된 아들을 두게 된 지금, 너무 행복하면서도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책임에 어깨도 무겁습니다. 임진년 새해에는 좋은 남편, 좋은 아빠, 좋은 동료가 될 수 있도록 힘찬 발걸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의 행복과 가족같은 정읍기상대 직원분들의 행복과, 기상청 모든 분들의 희망이 다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 동해기상대 정애란

동트는 동해~ 출근길 아침바다와 함께 눈부시다.
그 행복함 때문일까? 찰떡처럼 점점 부풀어 오른다(?)
2012년 목표 중 하나, 섹슈(?) S라인을 만드는 것, 매일 2ℓ의 물을 마시며 눈물을 머금고 감행할 예정이다. 2005년 출산 이후 12kg이상의 추가무게를 버텨준 내 몸뚱이에 감사를 표하며, 용이 하늘로 승천하듯..... 가볍고, 날아갈 듯한 몸을 꿈꾼다.

● 추풍령기상대 조혜진

기상청에서 가장 어린 용띠, 쌍팔년 황금용의 해에 태어난 조혜진입니다. 2011년에는 '기상청 합격'의 감격만으로 감사했던 한해였다면, 올해는 기상청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익혀서 하늘로 힘차게 오르는 용처럼 괄목상대한 내공을 쌓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현재 전화영어를 수강하고 있는데, 연말에는 Native speaker 처럼 말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살과의 전쟁에서도 기필코 승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장롱면허가 아닌 best driver가 되고 싶어요. 2012년, 흑룡의 힘을 발휘해 보겠습니다!!



● 울릉도기상대 조현지

우리나라 최동단 울릉도에서 해를 제일 먼저 맞이할 수 있는 행운을 가졌는데 또, 다가오는 해가 용의 해라고 하니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 새해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예보를 열심히 연구해서 유능한 예보사에 한발자국 다가갔으면 합니다. 해외여행을 혼자 다녀도 전혀 불편하지 않게 영어공부를 더욱 열심히 하고 꾸준히 운동하여 이효리 몸매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새해에는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좋은 일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대구기상대 김효정

용이 승천하는 새벽에 태어나지 못하고, 낮잠 잘때 태어나 그러한가 게으름이 부지런함을 이긴 한해였네. 오랜 잠에서 깨어 기지개 펴며 돌아보니, 나는 그대로이나 사람도, 바람도 이미 옛것이 되어 모든 것이 낯설었네. 지나버린 세월, 잃어버린 시간 다른 귀한 것들로 보상받았으니 후회는 없다만 아직은 어리둥절한 내 모습이 원래의 나였던가 한숨이 섞여있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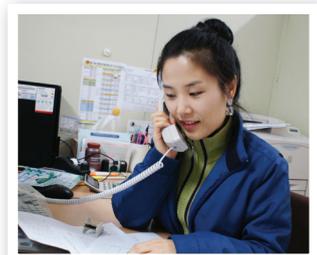
● 인천기상대 김찬솔

2012년 임진년에는 흑룡이 되어 창공을 힘차게 비상해 볼까. 2011년은 너무나 감사하고 소중한 한 해였습니다. 첫 딸을 기다리며 한줄한줄 일기장을 채우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지난 5월 3일, 드디어 저는 아빠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서현 엄마, 애정씨! 결혼 전, 매년 결혼기념일에 여행 다녀오자던 약속 기억해? 임신, 출산 때문에 제대로 챙기질 못했는데, 내년 3주년 때에는 우리 딸 서현이와 함께 예쁜 곳으로 여행 다녀오자. 그리고 2012년에는 더 멋진 남편, 자상한 아빠가 되도록 노력할게.



● 부산청 기획운영팀 윤미희

2011년은 연초부터 일반적으로 발령받는 기쁨으로 시작하여, 연말에는 베스트스마일로 선정되는 큰 영광으로 한해를 마무리하게 되어 행복했습니다. 2012년은 제 띠와 같은 용띠해이니만큼 더 설레고 기쁜 일들만 생길 것 같은 좋은 예감이 듭니다. 새해엔 기획운영팀 여직원들과 계획한 해외여행을 위해서 영어회화공부도 부지런히 하고, 건강을 위해 운동도 챙기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딸과 더 많이 잘 놀아주는 엄마, 또 꿀물(^^) 남편과 항상 사이좋게 잘 지내고, 친정과 시댁 부모님을 더 많이 찾아뵙고 더 자주 전화 드리는 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래 잡은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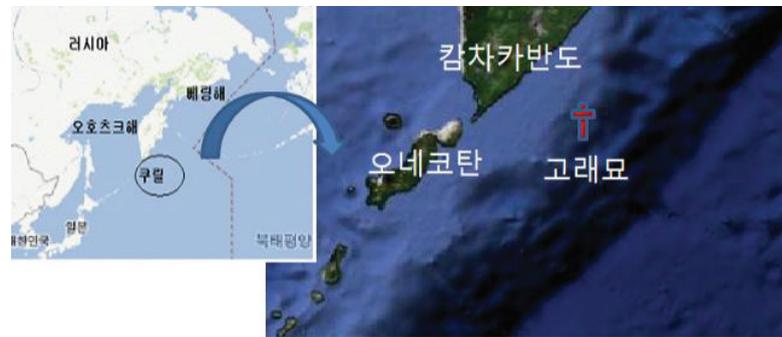
류동균 / 기상호 선장

1997년 7월 ○일,

제 나이 스물아홉, 한창 팔팔할 때 북태평양 검푸른 바다 러시아 캄차카에서 고래를 잡았습니다.

혹자는 제가 고래를 잡았더니 농담으로, 또 혹자는 이 고래(?)가 그 고래냐 하며 궁금해 하기도 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알려지면 국제법상 다소간의 피해가 예상되어 혼자만 아는 비밀로 간직할까도 했으나 10년도 훨씬 지났고, 기억도 가물가물해지니 더 늦기 전에 이실직고(以實直告)함과 아울러 덧없이 죽어간 고래에게 극락왕생(極樂往生)을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명태는, 조선 인조 때 명천(明川郡, 함경북도 동남부)에 사는 태(太)씨가 잡아 올린 고기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는 매우 친근한 생선입니다. 그래서 명란젓과 창란젓을 비롯해 봄 춘태(春太), 겨울 동태(凍太), 녹고 얼리길 반복해서 생긴 황태(黃太) 그리고 요즘같이 술 마신 다음날 더 정감이 가는 북어국의 북어(北魚) 등 다양한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명태가 언제부터가 사라져 국립수산물과학원에서는 최근 우리수역에서 잡은 명태를 긴급수배(?)하는 현상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알고 보면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명태는 대부분 일본 홋카이도 부근에서 잡히는 것들이고 명태 이외의 것들(동태, 가공된 황태, 북어 등)은 우리나라 어선이 직접 캄차카 반도 등 러시아 수역에서 입어료(入漁料)를 주고 일정한 쿼터를 확보해 잡아들여 온 것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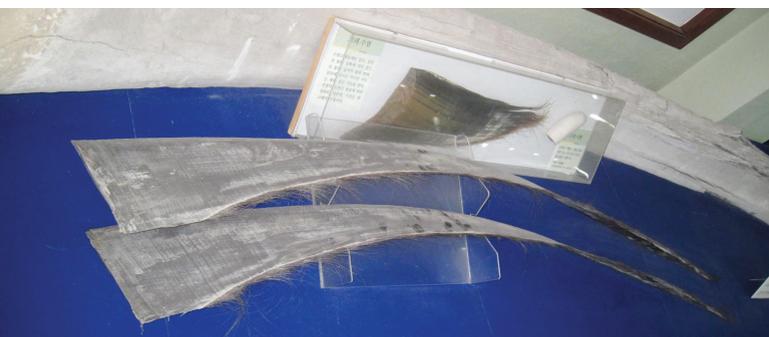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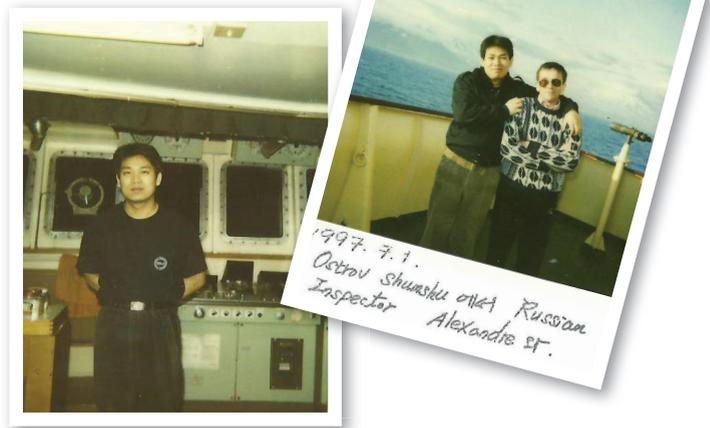


캄차카 반도에서 여름철 명태작업을 하던 때였습니다. 하루에 약 4,000팬(1팬은 21.5kg, 가로59cm*세로36cm*높이9cm)의 씨알 좋은 명태를 어획했으니 그때 시가로 치면 약 1억 2천만 원의 수익이었습니다. 한 달이면 30억, 6개월이면 180억의 어마어마한 수익이 예상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은 중층 그물로 수심 50~150미터 층을 끌고 다녔습니다. 그물로 끌고 다니는 바다 속 세상은 어떨까요? 그 세상은 마치 설악산 꼭대기에서 비행기를 타고 낮게 천천히 달리는 것처럼 높은 산과 깊은 계곡, 너른 평지, 돌밭 등이 수시로 나옵니다. 저층그물로 교환하기 위해 마지막 중층 그물을 올리려는데 저 멀리 그물 끝에서 뭔가 시커멓고 거대한 것이 꿈틀 하고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뭐지?’ 하고 쌍안경으로 자세히 살펴보고 있는데 갑판에서 “초사님(일등항해사를 이렇게 부릅니다)! 고래가 잡힌 것 같습니다.”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보니 그물 끝에 빠죽이 나온 것은 고래의 가슴지느러미? 얼추 봐도 25,6미터는 족히 돼 보입니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할 수 없다. 갑판에 끌어 올려야겠다.’ 생각하고 간신히 갑판에 올렸습니다.

짜자잔~~ 우선 그물이 갈갈이 찢겨있고(3,000만원이 방금 날아갔습니다.) 길이 28미터, 무게 200톤의 엄청난 놈(?)이 그물 안에서 숨을 활딱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이쿠……. 이런……. 대형사



기증 했던 고래 수염

고 터졌구나!’ 그때부터 긴박하게 사고 수습에 들어갑니다. 일단, 러시아 검사관부터. ‘그 친구에게 들리면 벌금이 얼마가? 가장 높은 벌금을 맞을 것이 분명하다.(러시아는 고래 등의 포유류 어획이 절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항해사에게 우선 검사관 방면 앞을 철저히 지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올라온 놈(?)부터 검사를 해보니, ‘아? 이놈은 분명 참고래(긴수염고래, Fin whale)구나. 이것을 어떡한다.’ 재빠르게 머릴 굴렸습니다. 검사관이 보기 전에 다시 물에 넣어야 하는데 커다란 덩치로 인해 아무리 용을 써도 한 치도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놈의 옆구리를 커다란 방석만큼씩 떼어내어 무게를 줄였습니다.

전 선원이 달려들어 한 손에 칼 하나씩 들고 커다란 고래의 옆구리에 들러붙어 대충 가로40*세로30*두께15~18cm로 떼어내, 되는대로 어창으로 집어넣기

를 한 시간여. 얼추 갑판 기기로 움직일 수 있는 무게까지 되었을 때 이젠 어쩔 수 없이 무덤을 만들어 줘야했던 생각이 퍼뜩 들었습니다. 그 길로 약 한 시간을 달려 캄차카 동쪽 수심 1,000미터 되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엄숙하고 경건한 장례식을 위해 커다란 원을 그리고 비장한 목소리로 “렛고!!(Let go)¹⁾”

물속으로 천천히 가라앉는, 옆구리가 웅하니 없어져 이상하지만 애처롭던 그녀(암컷 고래였음)의 눈을 보며 다음 생은 좋은 곳에 좋은 몸으로 태어나길 기원하며, 비디오플로터(Video Plotter:배의 항적이 모두 기록됩니다)에 십자가 모양과 함께 ‘고래묘’란 인식표를 쾡하고 찍어냈습니다. “고래야, 너와 나의 운명이 이렇게 어울리는구나…… 어쩔 수 없으니 다음 세상엔 좋은 곳에 태어나거라!” 이렇게 하여 저의 고래 잡은 날은 끝이 났습니다.

뒷얘기

하나, 그 항차 말 부산으로 입항하니 회사에서 먼저 알고 달려왔습니다. “고래 잡았다며, 그 고기 다 어딴냐?” 하며 잔뜩 신고 가는데 4.5톤 트럭이 딱 차 보였습니다. 시가로 엄청난 액수였다는 뒷말과 함께, “다음에 잡으면 고기 한 점도 버리지 마라”는 당부도 잊지 않습니다. 사람들…… 참…….

둘, 씨트러스호(당시고래 잡은 배)는 지금 불타서 차가운 북태평양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1) 렛고(Let go)는 트롤선에서 그물을 바다에 투입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울릉도 기상인의 겨울나기

울릉도기상대

여름의 화려한 녹음이 지나고 찬바람에서 가을 냄새가 나더니 12월 8일, 울릉도에 첫 대설(大雪)이 찾아왔다. 그렇다. 그렇게 여름부터 걱정하고 걱정했던 울릉도의 겨울이 왔다.

울릉도 기상대 직원은 총 9명이다. 그 중 7명은 타향살이를 하고 있다. 울릉도와 육지를 왕래할 수 있는 수단은 배가 유일하기 때문에, 타향살이 직원들이 집에 가려면 해상날씨가 매우 중요하다. 겨울이 오기 전엔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다녀오곤 했지만 11월 말부터 해상 날씨가 나쁜 날이 많아지면서 한 달에 한번 집에 가는 것도 힘든 일이 되었다. 지금부터 올 겨울을 잘 보내기 위한 울릉도 기상인들의 겨울나기 계획을 몇 가지 소개해볼까 한다.

다독왕(多讀王)은 누구?!

먼저, 독서다. 책은 단순히 여러 글자가 적힌 종이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가보지 못한 세계를 갈 수 있게 하고 옛 현인들을 만나 그들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우리로 하여금 시공간을 초월하게 해주는 좋은 매개체이다. 또 독서는 마음의 양식이라 하지 않는가. 독서를 통해 다급했



던 일상에서 벗어나 여유를 찾고 마음을 풍요롭게 살찌워 볼 예정이다.

‘겨울엔 마음에 씨앗을 뿌리자’고 정하고 성취감 및 동기 부여를 위해 직원들의 독서량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패널(panel)을 특별 제작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직원들의 적극적인 독서를 응원하기 위해 ‘다독왕’을 선발해 소정의 선물을 증정하기로 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올 때쯤 독서 패널 속에 바를 정(正) 꽃들이 만개한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A sound mind in a sound body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이 있다. 많은 눈, 그리고 매서운 찬바람과 싸우다 보면 체력이 많이 떨어지고 감기와 같은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크다. 행복하고 능률적인 직장생활을 위해서는 이에 대비한 체력관리가 중요하다.





- 01. 울릉도의 일출
- 02. 동료의 피로 풀어주기
- 03. 8가지 건강박수 운동
- 04. 울릉도의 겨울

전 직원이 함께할 수 있으면서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운동을 고민해본 결과, 탁구를 치기로 했다. 점심시간마다 복식으로 게임을 하며 내지르는 탄성과 환호는, 직원들의 팀워크도 다지게 하고 체력도 강화시킬 것이다. 또한, 퇴근 전 동료와 대면하여 손등박수, 목뒤박수 등 8가지 건강박수 운동과 서로 어깨 주무르기 등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미소 지을 수 있는 운동을 하기로 했다.

울릉도, 어디까지 가봤니

울릉도는 우리나라 최동단에 있기 때문에 1월 1일 가장 먼저 일출을 보는 영광을 누릴 수 있다. 특히, 내수전 일출 전망대에서 '어화'(추석에서 11월까지 오징어잡이 배의 불빛이 마치 바다 위 떠다니는 촛불과 같다하여 어화漁火라 한다)가 아름답기로 유명한데 울릉도에서도 아침 해를 가장 먼저 맞이하는 해돋이 명소로도 알

려져 있다. 내년 1월 1일에는 직원들이 함께 내수전 일출 전망대에서 해돋이를 보면서 소원도 빌고, 새해 다짐도 새기는 뜻 깊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 또한 울릉도에선 매년 1월, 나리분지에서 눈꽃축제를 개최하는데, 눈썰매타기, 눈사람 만들기, 대나무 스키타기, 설피 신고 걷기 등 다양한 행사들을 체험할 수 있다. 그 지역 정서와 문화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직원 간 화목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더욱이 기대되는 시간이다.

고생 끝에 낙이 오고 겨울 끝엔 꼭 봄이 오기 마련이다. 독서로 마음을 다스리고 운동으로 체력 관리도 잘하여 올 겨울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리고 무사히 잘 보냈으면 좋겠다. 어려운 시간을 함께 이겨낸 만큼 단결하여 더욱 돈독한 울릉도기상대가 되길 기대해 본다.

흑산 홍어로 추운 겨울을 잠시 잊자!!



박한나 / 흑산도기상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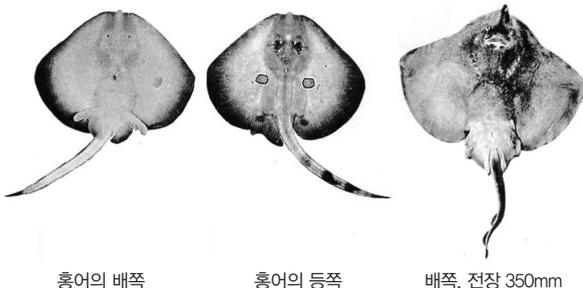
“어, 이게 무슨 냄새야!”
 “그래도 톡 쏘는 이 맛이 제 맛이지.”
 “우리 막걸리 한 잔 어때냐.”
 “김치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지.”

묘한 냄새로 후각을 자극하고, 톡! 쏘면서도 찰진 식감으로 우리의 입맛을 자극하는 ‘홍어’를 맛보았다면 한번쯤은 들어봤을 대화일 것이다.

요즘처럼 코끝이 찡하고, 손이 시려 외투주머니에 깊게 넣을 정도로 쌀쌀한 찬바람이 불어올 때면 생각나는 것이 홍어이기도 하다.

홍어의 생김새

홍어는 밥상에 올라가는 대중적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생김새를 떠올릴 때면 가오리가 먼저 떠오를 것이다. 비늘이 없는 어류, 가오리과의 바닷물고기로서 가오리와 매우 흡사한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가오리는 입 부분이 둥글거나, 약간 모가 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비해 홍어는 입이 뾰족하며, 굽은 꼬리 윗부분에 2개의 지느러미와 2~4줄 늘어서 있다.



홍어의 배쪽

홍어의 등쪽

배쪽, 전장 350mm



흑산항 전경

홍어 먹거리

홍어의 산란기는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이며, 11~12월에 가장 성하다. 어기(漁期)는 동절기부터 시작되고 요즘 시기인 겨울에 맛이 좋으며 특히 입춘 전후에 가장 좋다가 2~4월이 되면 그 맛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사계절에 걸쳐 홍어가 잡히지만 몸을 움츠리게 하는 겨울철 맛이 가장 좋아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

전남 서해안 지방에서는 대부분 삭힌 홍어를 즐기는데 흑산도에서 홍어를 잡아 목포까지 운송해 오는 시간 때문에 자연스럽게 물에서는 삭힌 홍어를 먹게 되었다고 한다. 잔치음식에 홍어가 빠지지 않는 전남 목포시가 고향인 터라 홍어의 고약한 냄새는 ‘씨익’ 웃음 짓게 하는 ‘나는 홍어다’ 고유의 냄새일 뿐, 나에게 삭힌 홍어는 별미 음식이다.



하지만 흑산도의 경우 갓 잡은 홍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육지보다 덜 삭히고, 싱싱한 회를 주로 먹는다. 툇 쏘는 맛은 적지만, 육지에서는 질겨 먹지 않는 홍어 껍질도 씹힐 정도로 훨씬 부드럽고, 마치 쇠고기 육회를 먹는 것처럼 차지고 단맛 또한 느껴진다. 특히 홍어 간 즉, ‘애’는 맛이 고소하고 부드럽다고 해서 ‘애’를 먹으려고 홍어를 잡는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인데 흑산도 단골 홍어 횃집을 가면, “한나씨, 얼른 애 먹어야지!” 사장님이 챙겨주실 정도로 가장 으뜸이라 할 수 있다.

흑산도 홍어와 축제

일식에서는 생선 아가미 부분에서 피를 빼내고, 일정시간 숙성시켜 회를 즐기는데, 이는 생선의 빛깔이 선명하고 회의 맛을 더 차지게 한다. 흑산도의 낚시잡이 또한 바늘에 홍어가 찢리면서 피가 다 빠져나가게 되고 수일 동안 바다에 있기 때문에 그물로 잡은 홍어보다 더 좋은 맛을 낸다. 다른 지방에서도 홍어가 잡히기도 하지만 흑산도에서만 낚시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홍어하면 흑산도, 흑산도하면 홍어’라는 수식어가 사용되는 것이 아닐까 싶다. 그에 걸맞게 흑산도에서는 매년 홍어 축제가 개최되어 홍어의 여러 가지 음식을 소개하고,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흑산도를 찾는 관광객들은 관광 필수코스처럼 홍어를 찾는데 꼭 삼합(홍어, 돼지고기, 김치 세 가지 음식을 한꺼번에 먹는 방법) 이야기를 꺼낸다고 한다. 하지만 흑산도 지역민들은 “흑산도에서는 돼지고기와 함께 먹지 않습니다. 홍어의 맛을 잘 느낄 수가 없거든요. 홍어의 제 맛을 느끼기 위해서이지요. 홍어축제에서도 홍어나, 간단히 김치를 곁들여 먹습니다. 이렇게 드셔보세요 홍어의 제 맛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라고 홍어 먹는 방법을 추천한다.

또한 홍어의 향이 강해 홍어를 먹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 순한 부위부터 홍어전, (신 김치)홍어찜에 도전해 보는 것이 좋다. 어느덧 입안이 화~해지고 코끝이 찡해지며, 살짝 몸이 떨리는 그 맛을 즐기게 될 것이다.

오늘 저녁, 외투에 손 깊게 넣고, 쌀쌀한 공기를 가로질러 툇 쏘는 홍어회 한 점! 어떠신가요~.

〈참고자료〉

- 자산어보(玆山魚譜) / 발행처 : 신안군 기획예산실, 경향신문, 중앙일보
정약전이 1801년(순조1년) 천주교 박해사건인 신유박해 때 전라도 흑산도에 유배되어 1814년(순조14년)까지 생활하면서 이 지역의 해상 생물에 대해서 분석하여 편찬한 해양생물학 서적



01. 02. 03. 낚시바늘 04. 낚시바늘 작업 모습 05. 홍어 축제

대관령에서 스노우홀릭에 빠지다



이진화 / 대관령기상대



올해 8월 1일자로 부산에서 대관령까지 왔을 때, 먼 거리보다도 남쪽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추운 겨울 걱정애 마음이 다소 무거웠다.

녹녹하고 무더울 거라 여겨왔던 여름은 어느 때보다도 시원하고 상쾌하게 보냈지만, 이곳의 겨울은 생각보다 훨씬 냉혹했다.

매서운 바람과 강추위는 형별인 능지처참을 연상하게 했고, 폭탄처럼 떨어지는 눈은 손과 발을 바쁘게 묶어 버려 뉘를 잃게 만들었다. 그전까진 신비롭고 설레임의 대상이었던 눈이 지겹고 원망스럽기 시작했다. 하지만 하늘이 본연의 색을 찾아 평온을 되찾

으면, 눈웃을 입은 지상은 하늘보다 맑고 빛나는 모습으로 모든 이의 시선을 사로잡아 버렸다. 그 순간만은 원망을 접고 설경에 취해버렸다. 대관령은 겨울철에 유독 눈이 많고, 기온이 낮다. 이런 이유로 주위엔 스키장이 많다.

스키를 한 번도 접해 보지 못한 나에게서는 좀처럼 적응하기 힘든 날씨였지만, 겨울철 레포츠를 즐기는 이들에겐 대관령의 혹독한 겨울 날씨를 반가운 존재일 듯하다. 용평스키장은 대관령기상대에서 10분 거리로, 설질과 규모 면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수준이라고 한다. 더구나 대관령기상대의 김원보 주무관은 직원들에게 무료로 스키 강습까지 해주신다고 하니, 이번 이야말로 스키를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기대감에 다소 흥분이 되었다.

‘완벽한 복장은 시작의 반이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조금 무리를 해서 복장과 시즌권을 장만하고, ‘아이러브스노우’(강원청스키·보드동호회)에 가입했다.



I LOVE SNOW

아이러브스노우

- 강원(청) 스키·보드 동호회 -

드디어 기다렸던 첫 정모의 강습이 시작되었다. 살이 찢기는 듯한 추위에 서 있기조차 힘이 들었지만, 너댓 살짜리 아이들이 바람을 가르며 스키를 타는 모습에 ‘난 저것보다 더 잘 탈거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A자로 서기, 다치지 않고 넘어지는 법, 리프트 타기, S자로 내려오기 등등…… 하지만! 마음과 달리 뻗뻗한 몸은 자세가 영 안 나와 민망하고, 자꾸 스스로에게 화가 났다.

힘 조절이 잘 안되고 겁이 많아, 속도가 조금만 붙어도 몸이 얼어붙었다.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수없이 반복한 끝에, 겨우 초급자 코스에서 내려 올 수 있었

다. 정말 갈 길이 먼 듯했다. 그러나 “이제 시작이니, 좌절금지!!”라고 다짐하면서, 올 시즌에는 중급자 슬로프에서 S자로 내려오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너무나 큰 욕심을 부린 건 아닌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시간이 날 때마다 꾸준히 스키를 탄다면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

몸이 둔해지는 혹한의 계절 속에서 쉽게 움츠러들지만, 스키의 매력에 빠져 무서운 겨울을 즐기며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내년 시즌에는 상급자 코스에서 바람을 가르며 우아하게 스키 타는 모습을 기대해본다. 상상만으로도 힘이 난다. 나에게 이곳의 겨울은 눈과 전투를 벌이느라 괴롭기도 하지만, 결국은 중독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세계 기상업무를 선도하는 그날을 위해



김미옥 / 정읍기상대

악재 속에서 호재가 꽃핀다. 비단 증권시장만의 얘기가 아니다. 날씨가 좋지 않은 나라는 대개 기상선진국이다. 현재 내로라하는 기상선진국이 토네이도가 엄습하는 미국, 쓰나미가 출몰하는 일본, 날씨의 변화가 심한 영국 등이라는 점에서 잘 알 수 있다. 황사, 호우, 태풍, 대설 등 위험기상에 노출된 우리나라도 부단한 노력 끝에 최근 기상선진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세계 7번째의 독자 기상위성 운영, 슈퍼컴 3호기 도입, 영국 통합수치예보모델 도입·운영 등 선진국 수준의 예보기술능력을 보유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자족하기에는 이르며, 아직도 벤치마킹할 것이 많다.

유럽의 기상선진국인 프랑스기상청과 영국기상청의 선진예보시스템은 어떠할까? 이러한 궁금증을 안고, 조서환 단장을 포함하여 총 11명의 우리 일행은 12월 4일부터 10일까지 5박 7일 간의 일정으로 출국 길에 올랐다.

12월 4일 14시에 인천 공항을 출발한 비행기는 12시간이 지나서야 비에 젖은 파리 드골 공항에 도착했다. 파리에서 다시 비행기를 타고 남쪽의 툴루즈로 이동하여 여장을 풀니 현지시각으로 자정이 다 되었다.

툴루즈는 프랑스 항공우주산업의 중심지이며, 항공기 제작 전문업체인 에어버스 본사가 있는 곳이다. 12월 5일 우리 일행은 툴루즈에 있는 프랑스기상청(Meteo France)을 찾아갔다. 툴루즈에 기상청 본청을 둔 이유는 기상이 항공 우주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 모든 것이 모여져 있는 곳이 바로 툴루즈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기상청 전체부지가 50ha에 이



01



02

01. 영국기상청 전경 02. 프랑스기상청 전경

르고, 여기에 1982년부터 건립했다는 콘퍼런스센터, 예보센터, 기상연구소, 기상대학, 군예보센터, 관측장소 등이 한데 모여 있다. 규모도 크지만 업무가 매우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다. 전체직원 은 3500명이고, 본청에만 1500명이 근무하고 있다. 프랑스기상청 의 기상대학은 정규대학과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직원의 대부분은 기상대학 출신이다.

12월 6일은 툴루즈를 떠나 파리로 향했다. 프랑스기상청 산하의 7개 기상대 중 하나인 파리기상대를 방문했는데, 물방울이 떨어지는 모습을 형상화한 조형물이 눈길을 끌었다. 파리기상대의 예보업무는 툴루즈의 프랑스기상청과 예보토의를 통해 여러 수치모델 자료 중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수치모델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받아 관할 지역의 기상예보를 생산한다. 파리기상대에서 시연을 통해 보여준 예보업무지원시스템 SYNERGIE는 예보관이 예보와 특보업무에 활용하는 도구로써 모든 기상자료를 중첩 분석하여 표출하는데, 우리 기상청의 기상분석시스템과 비슷했다.



01. 프랑스기상청 방문 기념촬영
02. 영국기상청 방문 기념촬영

12월 7일은 파리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유로스타를 이용하여 영국 런던으로 이동했다. 이어서 12월 8일은 런던에서 4시간가량 버스를 타고 영국기상청(Met Office)을 방문하기 위해 영국 남서부에 위치한 엑서터로 갔다. 영국기상청의 역사는 1854년부터 시작되었으며, 긴 역사만큼이나 세계적인 기상기술력을 갖고 있다. 영국기상청은 날씨정보 뿐만 아니라 위험기상에 대한 특보, 항공기상정보, 국제화산재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통합현업센터에서는 위험기상, 단기 및 중기 날씨, 항공기상, 해양기상, 도로기상, 우주기상, 대기오염 등 분야별 예보관들이 일에 열중하고 있었다. 예보토의를 위한 브리핑은 하지 않으며, 매주 목요일 오후에는 예보관이 주간날씨브리핑을 실시한다. 이 브리핑은 ‘Street 브리핑’이라고 하며, 로비에서 공개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상청 직원은 물론 방문객들도 브리핑을 들을 수가 있다.

12월 9일은 그동안 흐린 날을 보상이라도 하듯 날씨가 참 맑았다. 휘영청 빛나는 런던 히드로 공항의 보름달을 보면서 출발한 비행기는 10일 저녁 어둠에 휩싸인 인천 공항에 내려앉았다. 각자 일터로 향하는 등 뒤로 저녁별이 하나 둘 늘어갔다.

우리 기상청의 기상기술력이 아직 세계적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독자적인 수치예보모델 개발과 성능 개선으로 선진예보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여러 나라에서 우리 기상기술을 벤치마킹하러 올 것이다. 세계 기상업무를 선도하는 그날을 위해 우리는 오늘도 밤을 지새운다. 저녁별은 새벽별이 될 때까지 반짝일 것이다.

기상청, 대학생들을 만나다

- 기상선진화추진단장과 함께하는 대학생 기상캠프의 성과와 의의

기상선진화추진단

2011년 12월 22일 제3회 대학생 기상캠프 수료식과 함께 2011년에 진행된 총 3회의 대학생 기상캠프가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총 3회의 기상캠프를 진행하며 서로 소통하는 가운데 참가자들은 물론 기상선진화담당관실에서도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대학생 기상캠프를 되돌아보며 젊은 대학생들의 에너지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1회, 8월 11~12일



2회, 9월 26~27일



3회, 12월 20~22일

미래의 블루오션, 기상으로의 초대

‘기상청이 우리 일상생활과 산업활동에 많은 도움이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1회)

‘기상자료가 날씨뿐 아니라 농업, 서비스 등에 활용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2회)

‘기상예보자료가 생각보다 광범위한 분야에 활용되는 것을 알았습니다.’(3회)

대학생 기상캠프 후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기상=일기예보’라는 고정관념을 깰 수 있었다는 응답들이 눈에 띕니다. 이번 기상캠프에서는 기상·기후자료의 다양한 응용분야와 활용방법에 대한 강의가 있었습니다. 강의를 들은 학생들은 각 정부 부처와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예보와 기후자료가 활용되고 있음을 새롭게 알게 되었으며, 기상정보를 통해 생각보다 큰 기회와 가능성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에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기상청장 특강



기상선진화추진단장 특강



IPCC 부의장 특강

소통과 이해, 그리고 공감

기상과 기상청의 역할에 대한 청장 특강과 전 세계 기상이변과 원인에 관한 크로포드 단장 특강, 그리고 기후변화와 국제적 대응에 대한 IPCC 부의장 특강이 진행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이 기상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기상과 기상청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소통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의욕과 열정이 넘치는 학생들의 질문과 단장님의 전문적이면서도 쉬운 답변이 오고 가는 동안, 대학생들은 기상과 관련된 국제적 감각도 익힐 수 있었을 것입니다.

대학생 : “기후변화에 대한 IPCC 보고서의 오류가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단 장 : “목소리 큰 소수의 과학자들의 주장이며, 조용한 다수 과학자들은 인간에 의해 기후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상캐스터와의 대화시간도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기상캐스터라는 직업과 기상예보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전공이 다른 참가자들 간 소통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기상캠프에 대한 만족도는 1회 72.4%, 2회 86.2%, 3회 90.3%로 갈수록 높아졌습니다.



대학생들에게 희망을!

‘기상청의 역할이 아주 크다는 것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1회)

‘기상업무가 너무나 매력적이며, 기상청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2회)

‘기상을 계속 전공해야 하는가라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확실히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3회)

‘실패는 불완전한 기회라는 지혜로운 인생경험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3회)

‘기상이 강해야 진짜 한 수 위!’ 이 문구는 제3회 기상캠프 화합의 장에서 대학생들이 작성한 캐치프레이즈 중 1등을 차지한 것입니다. 기상캠프에 참여하기 전에는 이들도 이런 말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상캠프에 참여한 대학생들처럼 우리 국민들이 기상에 대해 이해하고 기상정보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많은 홍보와 소통이 필요하겠지요? 참여자들과 진행자 측이 모두 보람찬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대학생 기상캠프가 새해에도 계속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위함입니다.

예보기술팀은 스마트예보시스템 구축, 일기도 분석 및 예보기술의 과학화, 예보관 역량 강화, 수요자 중심 예보서비스의 구현을 지향하는 “예보선진화”라는 비전을 갖고 팀원들의 사고와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유사일기도 검색기술, 위험기상 개념모델, 수요자맞춤형 통보서비스, 손에 잡히는 예보기

술 등 이미 구현 및 사용하고 있는 예보기술과 더불어 올해 상반기에 적용하게 될 통합감시분석시스템, 위험기상 융합시스템 등 예보업무의 획기적인 전환과 발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강민협 / 예보기술팀

팀원 모두 잦은 야근과 녹록치 않은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견딜 수 있는 힘은, 기상업무 발전을 위한 큰 걸음을 걷고 있음을 공유하고 성과를 얻고자 하는 욕심이 있어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비록 타이틀은 “이달의 기상인”이지만, 이 상의 의미는 팀원 전체에 대한 치하의 성격이라

고 생각합니다.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의 노력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보기술팀, 파이팅입니다.

날씨정보는 무한한 상상력으로 융합을 꿈꾼다.

생활기상정보란 각종 기상자료를 응용하여 일반 국민의 일상 생활·건강·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생산된 정보를 말합니다.

기상청에서 매일 발표하는 생활기상정보는 자외선지수, 체감온도, 감기기상지수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2011년도를 돌아보며 가장 뿌듯한 일이 무엇

이라 묻는다면 주저없이 ‘감기기상지수의 대국민 서비스’라고 하였습니다. 2011년의 시작인 1월부터 감기기상지수만을 생각하다가 11월에 드디어 감기기상지수를 서비스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날씨가 추워지면 감기 조심하란 말을 인사말로 하곤 합니다. 그만큼 감기는 흔한 질병이고, 동시에 반갑지 않은 손님입니다. 감기에 대해 현미경으로 살펴보듯 제대



허혜숙 / 기상산업정책과

로 알기 위해 관련 전문가인 병원 교수님들께 자문하고, 관련 논문도 찾아보고, 실제 감기환자자료와 기상자료를 비교·분석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기온, 일교차, 습도가 감기발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얻어 오늘, 내일의 감기기상지수를 탄생시켰습니다. 감기기상지수에 대해 국민과 언론이 긍정적인 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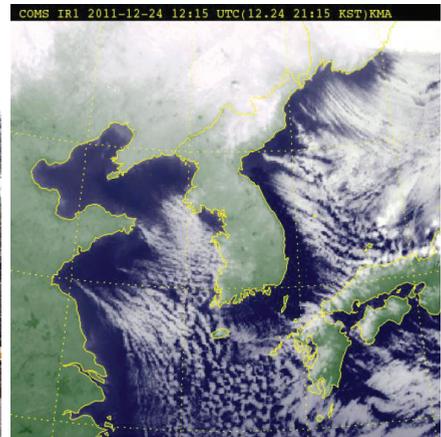
응을 보여 너무 뿌듯했습니다. 또한, 날씨정보를 활용하여 건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재미난 일이었습니다.

2011년에 태어난 막내 지수인 감기기상지수 덕분에 2011년 12월의 기상인이라는 상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라는 의미로 상을 주셨으니 2012년에는 더욱 신명나게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오면 선물이 쏟아집니다~

광주지방기상청 예보과



눈이 온다고요?? 그냥 문자하나만 보내면 돼요^^
적설량측??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문자하나만 보내면 돼요^^
하얀 눈이 평평!! 선물이 팡팡!!
눈이 오면 신고하십시오~!!

영화 ‘러브레터’, ‘러브 액츄얼리’, ‘러브스토리’. 겨울 하면 생각나는 로맨스영화의 대표이자, 새하얀 눈의 배경이 떠오르는 영화이다. 영화 ‘가위손’, ‘34번가의 기적’. 이 영화들 또한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감동적인 스토리와 함께 하늘을 가득 수놓는 눈을 무대로 한 겨울영화이다. 이런 이유 때문일까.

겨울, 하면 당연히 눈! 눈, 하면 당연히 연인!! 첫눈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맞으면 그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는 누구나 한번쯤 꿈 꿔봤을 로맨틱한 이야기

다. 하지만 하늘에서 내리는 눈꽃이 마냥 달콤하고 반갑지만 한 일은 아니다. 군대에서 10월부터 4월까지 계속되는 제설작업에 지쳐, 군인들은 눈을 ‘하늘에서 내리는 쓰레기’라고 부른다는 웃기지만 슬픈 에피소드도 있다. 또, 눈 내린 다음날이면 뉴스에서는 ‘눈길로 변한 골목길’,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주저앉은 비닐하우스 농가’, ‘눈길 도로에서 거북이가 되어버린 자동차’ 등의 보도가 쏟아져 나온다. 이렇게 ‘눈’이라는 녀석은 너무나 어렵다.

우리나라에 내리는 눈은 어떻게 오는 걸까? 여러 가지 기상학적인 배경이 있지만, 그 중에서 서해안의 대설은 겨울에 북쪽에 위치한 찬 대륙고기압의 세력이 커지면서 찬 공기와 서해안의 따뜻한 해수가 만나 눈구름이 생성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호남지역은 서해안과 인접해 있어 해마다 대설이 자주 나타난다.

특히, 지난 2005년 12월 21일에는 정읍 45.6cm, 광주 35.2cm 의 기록적인 대설로 큰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반복되는 대설을 미리 예측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상청에서는 CCTV를 이용한 적설모니터링을 비롯하여 도로공사, 지자체와의 융합행정, 대설예보 가이드스 개선을 위한 자체 세미나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눈은 여러 가지 변수를 가진 기상현상이라 최첨단 자동기상관측보다 관측하는 이의 목적(目測)에 더 비중을 두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광주지방기상청에서는 지역민의 참여를 통해 적설자료를 수집하고자 '겨울철 눈 제보 이벤트'를 시행하고 있다. 호남지역민이라면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눈이 내릴 때

#1110-3650으로 문자(SMS) 또는 사진(MMS)을 보내면 된다. 제보된 문자는 정부통합전산센터 MO시스템(Mobile Originated)을 통해서 광주지방기상청 예보실 PC 서버로 수신되어 예보업무에 활용하게 된다. 이번 이벤트는 겨울철방재기간이 종료되는 2012년 3월 15일까지이며, 최다참여자 3명과 문자제보에 참여한 500명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이번 눈 제보 이벤트는 지역민이 기상업무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직접 참여하는 계기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적설 관측 자료가 없는 지역의 기상상황을 문자 제보로 확인할 수 있어, 기상청의 방재업무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눈 적설 이벤트를 통해 위험한 눈의 기억은 잊고, 따뜻하고 포근한 눈의 추억만이 남길 바란다.

2011년도
눈 제보 이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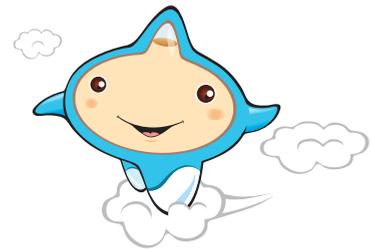
겨울철 눈 내리는 지역의 자료수집과
대설로 인한 기상재해 예방을 위한 눈 제보 이벤트!
내리는 눈 신고하고 ~ 선물도 받고 ~

- **용모기간** : 2011. 12. 1(목) ~ 2012. 3. 15(목)
- **참여방법** :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한 적설관측 문자 제보
(글, 사진 모두 가능, 1일 다수제보가능, 단 동일정보는 30분에 한건)
- **제보번호** : #1110-3650
- **제보요소** : 눈이 내리는 지역, 눈 쌓인 양(cm) 등
(예시) 화순군 광덕리 눈 3cm 쌓임,
전북 장수군 장수읍 북동 눈 시작(그림)

[우수제보자 포상]

- 상품권 10만원 : 최다 참여자 3명
- 상품권 5만원 : 10건 이상 제보자 중 추첨 10명
- 5건 이상 SMS(글), 3건이상 MMS(사진) 제보자 500명 기념품 증정

※ **당첨자 발표** : 2012. 3. 21(수) 광주지방기상청 홈페이지
<http://gwangju.kma.go.kr>



광주지방기상청
Gwangju Regional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 (062) 720-0200
<http://gwangju.kma.go.kr>
http://twitter.com/kma_jeonnam
http://blog.naver.com/kj_naissi

광주지방기상청
Gwangju Regional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눈 제보 이벤트
눈이 내리면 신고 하십시오!!

- * **용모기간** : 2011. 12. 1(목) ~ 2012. 3. 15(목)
- * **참여방법** : 눈이 내리고 있을때 기상정보를 문자로 발송
(글, 사진 모두 가능, 1일 다수제보 가능, 단 동일 정보는 30분에 한건)
- * **제보번호** : #1110-3650
- * **제보요소** : 눈이 내리는 지역, 눈 쌓인 양(cm) 등
(예시) 화순군 광덕리 눈 3cm 쌓임, 시작 또는 그림
- * **포 상** : 온누리 상품권 또는 기념품 증정

뒤돌아본 2011년 기상청 10대 뉴스

대변인실

매년 연말이 되면 그 해를 한마디로 압축 표현하고 새해의 바람과 희망을 상징하는 사자성어가 발표됩니다. 지난해 교수신문은 2011년을 상징하는 사자성어로 ‘귀를 막고 종을 훔친다’는 뜻의 ‘엄이도종(掩耳盜鐘)’을, 2012년 사자성어로는 ‘파사현정(破邪顯正)’을 택했습니다. 현실에 대한 비판의지를 담은 지난해에 비해 새해에는 ‘그릇된 것을 깨뜨려 없애고 바른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지를 담은 것이죠.

한 취업전문 사이트에서도 직장인들과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2011년을 축약하는 사자성어를 설문조사했습니다. 직장인은 ‘수무푼전(手無分錢, 주머니에 한푼도 없다)’을, 구직자는 ‘망자재배(芒刺在背, 등을 찌르는 가시를 업고 있다)’라는 사자성어를 각각 꼽았다고 하죠. 경기침체로 빈궁해진 현실을 반영하고 괴로운 취업난의 실태를 보여주는 말이어서, 지난해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도 힘든 한 해였음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도 직장인들은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고진감래(苦盡甘來)’를 2위로 택해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기상청의 지난 한 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떨까요? 가히 ‘절차탁마(切磋琢磨)’로 빛을 냈던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상청 대기만성 뉴스에서는 2011년 기상청의 10대 뉴스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새해 새 각오를 다지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하나하나 되돌아볼까요?

01 천리안위성과 기상호 등 선진 기상기술을 확보하다

지난 4월 1일, 천리안 위성이 모든 시험을 끝내고 정식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5월 30일에는 해상기상을 담당하는 첫 기상관측선인 기상1호도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선진 기상기술로 달라진 기상청의 면모를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02 일본대지진 선제 대응으로 기상청의 역할이 확대되다

3월 11일 일본대지진과 지진이 나온 방사능 유출 문제로 기상청은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었습니다. 국내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각종 언론에 대응하며 VIP 영상보고(3.11) 및 대면보고(3.12) 등으로 봄날이 어떻게 가는지 알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03 7월 집중호우 등 위기에 대응하는 기상청의 자세

3월에 국외에서 일본 대지진이 있었다면, 7월 26일에서 28일에는 국내에 기록적인 수도권 집중호우로 도시 홍수와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자연재해의 위기상황에서는 선제 대응으로 국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04 기상청 최초로 재난관리 개선종합대책 보고회를 개최하다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일상화 대응 포럼(9.6), 백두산 화산분화 시나리오(9.29), 「지진·지진해일·

NEWS

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11.22), 수도권 지자체 방재업무협의회(11.24)가 이어졌고, 기상청 최초로 재난관리 개선 종합대책 국무총리 보고회(12.9)를 개최하면서, 자연재해의 위기에 대응하는 기상청의 역할은 더욱 더 확대되었습니다.

05 새로운 기후변화 전망을 소개하다

새 기후변화 시나리오가 생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정비, 보완할 수 있도록 국가위기상황관리보고회(11.23), 녹색위간담회(11.25)를 통해 새로운 기후변화 전망을 소개했었죠. 이제 각 부처가 기상청의 새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공유하여 일관성 있는 정책수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06 기상산업 시장규모 1천억 원을 돌파하다

지난 해 처음으로 1천억을 돌파한 기상산업 규모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이에 발맞춰 날씨경영 인증제도를 도입(11.22)하고, 올해 안에 웨비게이션이 개발되면 기상산업의 확대에 더욱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07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격상하다

2011년은 세계기상기구 집행이사 재선에 성공해 전 세계 주요 기상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기상재해 대응능력 배양 과정(4.3~23)과 필리핀 재해방지 조기경보 및 대응시스템 구축사업 지원 등 개도국 지원으로, 국제 사회에서 기상 선진국으로서의 입지를 확보한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8 신나는 수상 행진

정부업무평가에서 핵심과제 우수기관으로 선정, 국민만족도 1위,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4.6/행정안전부장관상), 제도개선 우수사례 수상(11.2/국무총리상), 2011 하반기 정책홍보 우수기관 선정(11월/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융합행정 최우수기관 수상(11.25/국무총리상), 중앙우수제안 수상(12.30/대통령 근정포장) 등등 지난해는 노력의 결과를 인정받은 해였습니다.

09 슈퍼스타 KMA, 소통과 화합 속에 끼를 발산하다

11월 4일 열린 '슈퍼스타 KMA'는 창의력과 화합정신, 열정과 재능으로 똘똘 뭉친 기상인들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함께 뮤지컬을 관람하고, 총 18회의 명사특강으로 창의력을 키우고, 각종 동호회와 단비회 활동으로 친목과 나눔의 활동을 이어온 기상청 직원들이 그동안 숨겨온 자신의 끼를 마음껏 발산한 시간이었죠.

10 기상전문기자 출신 조석준 기상청장 취임

2011년을 장식한 10대 뉴스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조석준 기상청장의 취임입니다(2.9). 기상의 가치 확산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몰고 온 신임 청장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했던 일 년, 작년에 이어 2012년 올해는 우리 기상청에 또 어떤 뉴스들이 펼쳐질지 자못 궁금하고 기대됩니다.

「기후변화대응 재난관리개선 종합대책」회의 (12.9)

12월 9일(금) 기상청 다울관에서 국무총리 주재 「기후변화대응 재난관리개선 종합대책」회의가 열렸다.



사진으로 보는 기상청 소식

기상청은 신속하고 정확하며 가치 있는 기상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하여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롭게 변모하는 기상청의 살아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전합니다. | 편집단



겨울철 방재기상선포식(12.1)

12월 1일(목) 국가기상센터에서 「2011년 겨울철 방재기상선포식」이 개최되었다.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12.5)

12월 5일(월) 기상청 봉사동호회 단비회와 청해복지재단 지원으로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가 열렸다.





대기만성(大器晩成) 발표회 개최(12.29)

12월 29일(목), 2011년 국가기상업무의 성과를 공유하고, 한 해 동안 전 직원의 노력을 축하하고 격려하기 위해 기상청 대강당에서 「대기만성(大器晩成) 발표회」가 개최되었다.



2011년 하반기 정년퇴임식(12.30)

12월 30일(금) 40여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기상인을 기리기 위해 기상청에서 「2011년 하반기 정년퇴임식」을 가졌다.



제4차 JCOMM 국내조직위원회 회의(12.19)

12월 19일 기상청은 2012년 세계해양·기상학(JCOMM) 총회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 여수에서 열린 「제4차 JCOMM 국내조직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



국립기상연구소 착공식(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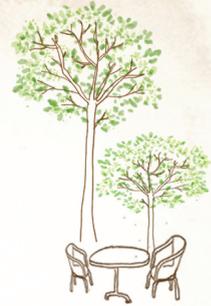
12월 1일 제주도에서 국립기상연구소 청사 착공식이 열렸다.



제3차 대학생 기상캠프(12.20~22)

12월 20~22일 「제3차 대학생 기상캠프」가 기상청에서 열려 전국 16개 대학 34명의 대학생이 참여했다.

여럿이 하나되어 즐거워 Quiz 를...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머리 좀 식히면 어떨까요? 「하늘사랑」도 읽고, 상품도 타고, 스트레스도 풀고...
5분의 여유만 있으면 됩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이번 달 퀴즈

- 광주지방기상청에서는 호남지역민의 기상에 대한 참여를 높이기 위해 '겨울철 눈 제보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이벤트가 종료되는 날짜는 2012년 몇 월 며칠까지인가?
① 1월 15일 ② 2월 15일 ③ 3월 15일 ④ 4월 15일
- 가오리과의 바닷물고기이며, 입이 뾰족하고 굵은 꼬리 윗부분에 2개의 지느러미가 있다. 겨울철에 가장 맛이 좋다고 하며, 전남 서해안 지방에서는 삭힌 것을 즐기기도 한다. 묘한 냄새로 후각을 자극하고, 톡 쏘면서도 찰진 식감으로 유명한 어류는?
① 문어 ② 가오리 ③ 도다리 ④ 흥어
- 기상청은 국가차원의 2차 기상업무 발전 기본계획('12~'16)을 수립해 2016년에는 지진정보를 ??초 이내로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음 중 ??에 맞는 것은?
① 50초 ② 100초 ③ 150초 ④ 200초



지난 달 퀴즈 정답: 1. ③ 2. ③ 3. ③

지난 달 퀴즈 정답자: 1. 김은정(광주) 2. 박용배(경기) 3. 김영준(서울) 4. 최왕희(강원) 5. 최은영(경기)



퀴즈 정답은

1월 25일까지 전자메일(mai@korea.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름·주소·전화 번호를 꼭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사랑」은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원고분량은 200자 원고지 15매 정도 (아래한글 10point, 줄간격 160%, A4용지 1장 반 정도)이고, 매월 20일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글과 관련된 사진이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채택된 외부기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인사발령

내용	일자	소속	직급(직위)	성명
전보	2012. 1. 9	기상청(교육훈련 파견)	고위공무원	진기범
		예보국장	고위공무원	이우진
		수치모델관리관	고위공무원	육명렬
		관측기반국장	고위공무원	박관영
		기후과학국장	고위공무원	엄원근
		강원지방기상청장	고위공무원	조주영

2012 기상사진전 작품 공모

- 1월 6일부터 2월 6일까지 기상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

기상청(청장 조석준)은 세계 기상の日(3월23日)을 기념하여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2012 기상사진전」을 위한 작품을 기상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모한다.

1월 6일부터 2월 6일까지 한 달간 공모하는 기상사진전의 주제는 '날씨, 그리고 기후변화 이야기'이다.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아름답고 신비한 기상현상을 담은 사진 또는 기상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사진을 대상으로 한다.

최우수상 1점(환경부장관상, 상금 200만원),

우수상 2점(기상청장상, 상금 각 100만원),

장려상 4점(기상청장상, 상금 각 50만원),

입선 43점(상금 각 10만원) 등으로,

총 50점의 입상작에 대하여 시상한다.

※ 「2012년 기상사진전」응모요령은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를 참고





급격하게 늘어나는 전력수요로 올 겨울 전력부족위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고유가와 전력부족 위기를 극복하는 손쉽고 확실한 방법은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절전 실천행동입니다.

온국민

올 겨울 전기절약 다 함께 **팍**

과도한 전기사용! 전력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팍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 ① 겨울철 건강 **실내온도(민간20°C, 공공18°C)** 지키고 체감온도 높이기
 - 체감온도 높이는 방법 : 내복입기 **3°C↑**, 가디건 **2°C↑**, 무릎담요 **2.5°C↑**, 덧신 **0.6°C↑**, 목도리 **2°C↑**
- ② 전력사용집중시간에는 전기온풍기, 전기스토브 등 **전기난방 끄기**
 - 전력사용집중시간 : 오전 10~12시, 오후 5시~7시
- ③ 점심, 외출, 퇴근시에는 **대기전력 차단하고 조명등 끄기**
 - 사무실·복도·창가 조명 **끄기**, 컴퓨터/프린터·냉온수기 **끄기**, 핸드폰 등 플러그 **뽑기**

온 국민이 함께했던 금모으기 운동과 같이 가정이나, 직장, 학교에서 **절전운동** (www.powersave.or.kr)에 참여합시다.